

# 온천과 사랑

2023  
여름호

## 온천탐방기

동해약천온천, 울산 범서온천 지지위터피아-김수남 작가  
일본온천-안소정작가

## 건강 칼럼

100세 시대의 온천-한국온천학회 안택원 학회장

## 전문가칼럼

온천법 변화에 따른 온천의 발전-이종태 고문  
온천검사에 따른 온천사업자의 역할과 준비-이철우 박사  
온천자원관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한국온천협회

## 지역축제

동래온천페스타, 부곡온천축제, 해운대달맞이  
온천축제, 유성온천축제, 마금산 축제  
수안보 온천제, 양성탄산온천축제

## 한국온천협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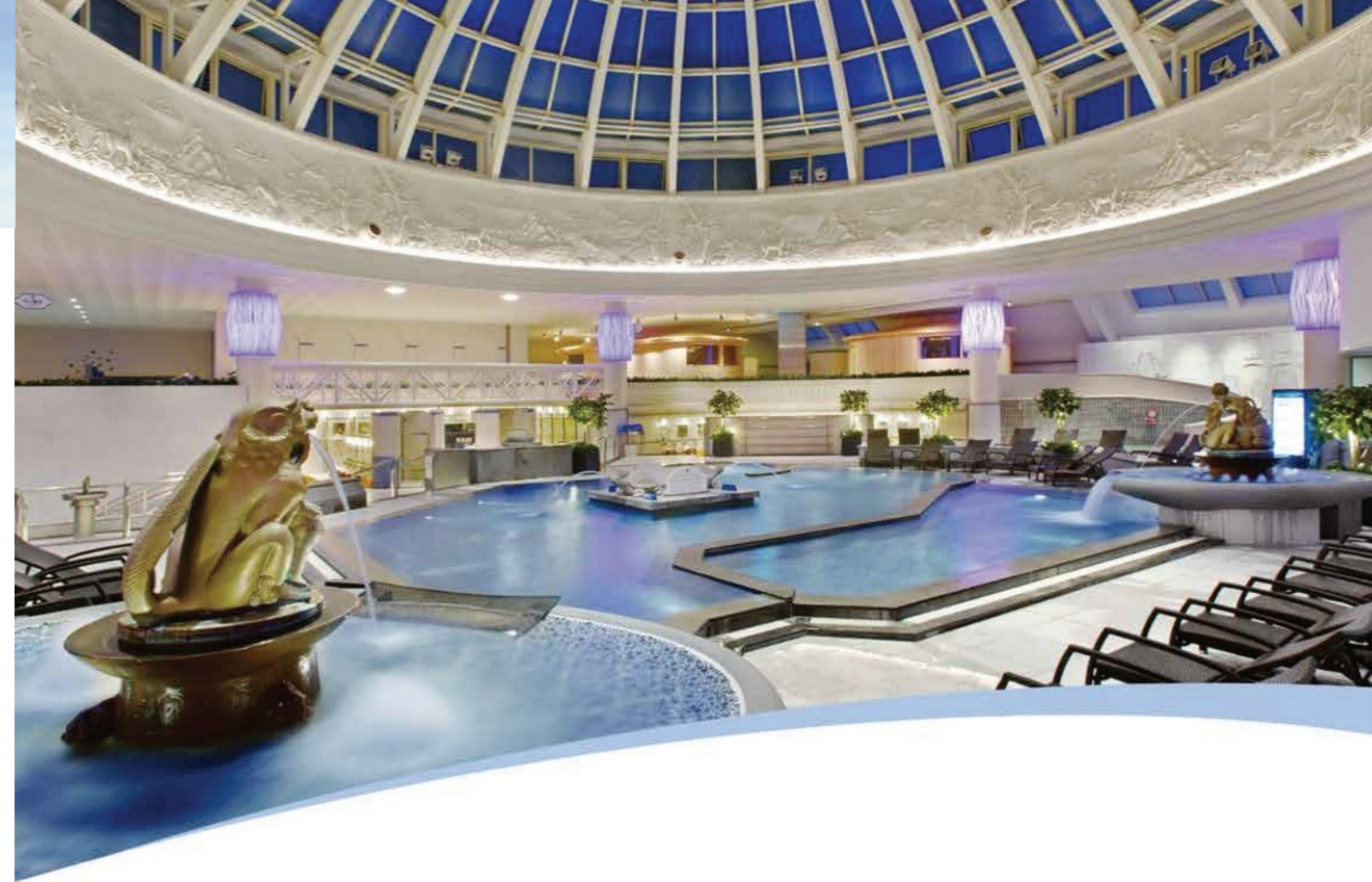
임원진 현황, 정회원 현황, 전국온천지자체 현황



ISSN 2384-0528

# 서울에서 도심형스파를 즐기자!

지하 1,040m 천연 유황온천수



## 유황온천수 분출 전경



온천수 온도 측정



대온천탕



소금방(여)



족욕카페



## An Urban Oasis Hurshimchung

국내 최대 마그네슘이 함유된 동래온천의  
투명하고 깨끗한 천연 온천수와 함께  
자연채광이 가능한 확트인 공간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허심청**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07번길 32 | 문의 및 예약 : 051.550.2200 | www.hotelnongshim.com



유황온천과 함께 하는 웰빙건강생활

## "우리유황온천"

- 서울시내 온천 중 가장 수온이 높습니다.(32.6)
- 광진구 1호 온천입니다.(허가번호 제2005-1호)
- 최고 품질의 천연 유황온천입니다.(지하 1,040m에서 용출)
- 강남&강북 양방향(전금용이)



## 취임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천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온천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성국입니다.

먼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를 오늘날의 위치에 있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2,3대 회장을 역임한 박동관 회장님의 그간의 업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고) 박동관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면으로 부족한 저를 한국온천협회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중요한 시점에 책임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이준식 균형발전사업과장님, 박중묵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님, 장준용 동래구청장님, 정규열 북부경찰서장 등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녁 만찬, 숙소 등 행사준비를 해주신 농심호텔 박훈 이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가 2007년 정식으로 출범한지 16년이 흘러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및 전, 현직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코비드로 인하여 산업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온천산업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성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개방, 경쟁으로 요약되는 주변환경 변화 속에서 온천산업이 더욱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회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회원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불타게 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지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비롯 개개인의 발전과 온천산업이 지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부족한 제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임원님과 회원님,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김성국 *김성국*

# 온천과 사랑

## 2023 여름호 CONTENTS

- 02 협회장 취임사-김성국 회장
- 04 동해약천온천, 울산 범서온천 지지위터피아(김수남 작가)
- 08 일본온천-안소정작가
- 12 행정안전부 소식
- 13 온천전문검사 절차 안내
- 14 한국온천협회 소식
- 16 지역축제
- 22 100세 시대의 온천-한국온천학회 안택원 학회장
- 24 온천법 변화에 따른 온천의 발전-이종태 고문
- 26 온천검사에 따른 온천사업자의 역할과 준비-이철우 박사
- 34 온천자원관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한국온천협회
- 36 회원사 명단(회원사명, 주소, 전화번호)
- 38 회원 현황



-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 발행인: 김성국 ▪ 발행일: 2023년 8월 1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507호(광화문오피시아빌딩)
- 정기구독문의 및 연락처:  
전화 02-720-5004, 팩스 02-723-5003 이메일 hot\_spring@naver.com
- 기획 및 디자인: (주)에스비인터랙티브 1577-0770

www.hot.spring.or.kr

# 망상해수욕장을 품은 호캉스 명소

## 강원도 동해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 온천특징: 몸에 좋은 지장수
- 주소: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6285
- 전화번호: 033-530-0700



글.사진/ 김수남작가

동해안의 빼어난 해수욕장으로 둘째가라면 서운해질 곳이 망상해수욕장이다. 맑고 깨끗한 백사장이 4km 남짓 이어져 끝에서 끝까지는 한 시간이나 걸어가야 한다. 물은 맑고 시원하며 해변 경사도가 2~4도로 동해안치곤 수심이 깊지 않아 안전하다.

그 천혜의 해수욕장을 앞마당처럼 쓰고 있는 곳이 있다.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이다. 호텔이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왕복 6차선의 7번 국도와 영동선 기차길이 가로막고 있어서 결코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호텔 앞마당에서 망상해수욕장까지 이들 난관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전용 다리가 놓여있다. 망상해수욕장이 호텔 앞마당으로 들어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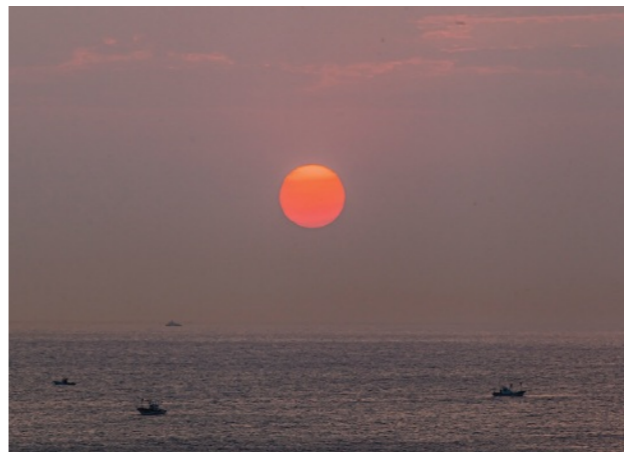
망상해수욕장

호텔이 자리한 곳 뒤편은 옛날부터 '약천'으로 불렸던 곳으로 나환자들이 찾아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하는 질 좋은 황토층으로 되어 있다. 지하 450m에서 끌어올린 온천수 또한 황토가 만들어낸 지장수다. 주변이 온통 마사토인데 온천이 들어선 곳만 황토라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지장수에는 해수 염기가 적당히 섞이는 바람에 오히려 미네랄 성분이 더해진 결과를 낳았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듯이 지장수는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효능이 있다. 특히, 피부에 좋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

pH농도는 6~7 정도 수준의 중성 내지는 약알칼리성이다. 알칼리성 온천수는 미끈거리고 산도가 높은 산성수는 뽀득뽀득거리는 특징이 있는데 적당한 수준이다. 뭐든 게 다 그렇듯이 온천수도 강알칼리성이나 강산성보다는 적당한 농도가 몸에 좋다는 게 신기수 호텔 총지배인의 설명이다.

온천탕 욕조는 지장수는 물론이고 해수와 유황천 등을 다양하게 갖췄다. 4개의 온천공 중 1곳에서는 유황천 온천수가 나온다. 조명이 붉은 것도 특이하다. 피부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원적외선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양온천은 온천법에서 정한 것으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 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온천이다. 온천수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객실에서 감상하는 동해 일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엔 컨벤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최대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은 국제회의가 가능하고 연회장도 600~700명 수용은 거뜬하다. 동해안을 통틀어 개인호텔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게다가 세로 50m의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이 있다. 어린이수영장과 여름에만 운영하는 야외수영장도 있으며 피트니스센터, 미니동물원 등의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7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는 레스토랑인데 한식·양식·일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세심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에 맛도 일품이다. 보유 객실은 총 180실인데 오션뷰 객실에 묵으면 침대 위에서 동해 일출 감상이 가능하다. 망망대해 수평선 위로 오메가를 그리며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방안에서 편안히 바라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그리고 온천으로 여독을 풀고, 이처럼 호사스런 호캉스가 또 어디 있을까! 수중 운동인 아쿠아피트니스를 비롯한 필라테스, 폼롤러, 요가, 싱잉볼 치명상 등의 웰니스 프로그램도 눈길이 간다.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2년 국내 웰니스관광지 58선에 선정되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에 '행복(happiness)'과 '건강(fitness)'를 합친 용어인데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웰니스관광이라고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신 총지배인에 따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향후 더욱 강화하여 보양온천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컨벤션호텔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연계 여행지로는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묵호 도재비골 스카이블리와 묵호항이 약 5~6km 거리다. 무릉별유천지와 무릉계곡도 동해 명소이고 강릉 정동진이 18km 거리밖에 안 돼 강릉여행도 부담 없는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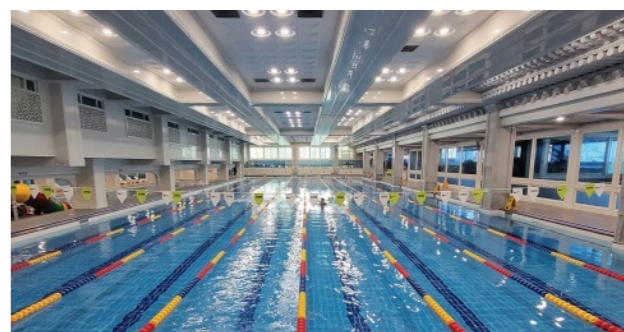
동해안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조망



객실



원적외선 조명이 인상적인 온천탕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

- 온천특징: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704
- 연락처: 052-246-1245

# 부부들에게 특히 좋은 명당 터

## 울산광역시 범서온천

글. 사진/ 김수남작가

울산은 세계적인 공업도시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및 정유, 조선업 등 일찍이 중공업이 발달하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광역 시 중에서 가장 높다. 울산 안에서도 울주군은 보석같은 존재다. 울산시민들을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은 물론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범서온천은 여러 가지로 색다른 면이 있다. 특히, 가족의 의미와 부부의 사랑을 강조하는 곳이다. 온천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히 '뜨거움'을 '시원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중장년층의 이용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부부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온천 측에서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부부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단순한 포지셔닝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 보인다.

"온천이 들어선 지형이 여성 자궁터입니다. 온천수는 양수인 셈이죠.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자녀들한테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온천 안 온탕에서 바라보는 국수봉에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어버린 박제상 부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은을암도 있습니다."

김동언 대표는 범서온천이 옛날 마을주민들이 물맛이로 몸을 다스렸다는 물탕골 명당 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 끝에 신라의 충신 박제상을 언급한다. 박제상의 부인은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마침내 망부석이 되어버렸고 훗날 한 마리 새로 환생해서 온천 맞은편 국수봉의 바위틈으로 날아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전해진다. 요즘같이 부부의 연을 가뭄계 여기는 세대에서 박제상 부인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범서온천에



연화산 자락 해발 308m에 자리한 범서온천



범서온천에서 바라본 국수봉



야간에 운영하는 자동차극장



온천탕 내부 모습



온탕에 들어가 않으면 병풍처럼 둘러선 국수봉이 보인다

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온천은 산삼이 나온다는 연화산(532.5m) 자락 해발 308m 고지에 들어섰다. 지하 1,000m 천연암반수에서 뽑아 올린, 환원수 성분이 있는 물을 자랑한다. 5개의 온천공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28°C에서 33°C에 이르는데 천연 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건물 자체에 아예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모든 물은 전부 온천수만을 사용한다. 구내 빵집에서 구워내는 빵도 전부 온천수를 사용해 만들어 손님들로부터 별미로 평가받는다. 욕조는 모두 국산 욕으로 마감했다. 욕의 좋은 기운이 뜨거운 물을 만나 효과가 극대화된다. 물을 직접 체험해보니 미끈거리면서도 뒤끝에 약간의 뽀드득한 느낌이 든다. 온몸이 부드러워진다. 목욕 후 3일이 지나도 머리가 가렵거나 답답한 느낌이 안 들고 시원했다. 비누나 샴푸도 잘 먹고 세정효과도 좋았다. 온탕에 들어가 앉으니 바깥쪽 벽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는데 맞은편 국수봉과 그 아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랭이논이 있는 그 풍경은 베트남 사파의 풍광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답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고 힐링 되는 백만 불짜리 뷰이다. 공업도시 울산에서 질 좋은 온천수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쉼터 역할을 해온 김 대표에게도 시련이 다가왔다. 2020년 기록적인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산자락에 위치한 까닭에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온천은 무엇보다 물이 좋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김 대표는 좌절을 딛고 재기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6월 말 운영 예정인 300평 규모의 힐링센터 조성에 여념

이 없다. 가공된 자연석을 활용해서 양자에너지를 방출시켜 이를 쏘아내는 체형장이다.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양자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 힐링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추구하는 온천으로 더욱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과거 야외수영장으로 운영하던 공간은 노천탕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게 아쉬움인데 그 대신 캠핑장을 조성 중이다. 자연 속 텐트에서 하룻밤 보내고 온천욕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도시 울산에서 꿈꾸기 어려운 낭만이다. 부부나 가족 단위로 오붓하게 영화 감상할 수 있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연계 여행지로는 울산의 명소 태화강국가정원과 반구대암각화, 천천리각석 등이 20분 내외 거리로 함께하기 좋다. 동해안에서 햇빛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간절곶도 40km 거리다.



지공에 해당하는 명당터임을 설명하는 김동언 대표

# 다시 가고 싶은 온천 도시의 비밀

## 해외 온천 탐방 일본의 온천

글.사진/ 안소정작가

일본 규슈의 오이타현 벳푸(別府)시. 인구 12만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연간 총 관광객은 3백 72만 명(3,722,365명, 2021년 기준, 출처 벳푸시청)에 달하는 관광 도시다. 벳푸의 가장 핵심적인 관광 자원은 온천. 일본에서는 '바다는 세토내해(瀬戸内海), 온천은 벳푸'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데는 여러 온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색적인 볼거리가 중심인 지옥 온천부터 고급스러운 호텔과 여관의 온천이며 저렴한 공동온천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여행객의 발길이 닿는 온천은 한정적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온천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코스를 짤 수 있을까? 보통은 두 가지다. 유명 온천지를 둘러본 뒤 잠깐 몸을 담그고 떠나거나, 혹은 관광을 마치고 숙소 온천에 몸을 푼데다. 벳푸도 마찬가지다. 지옥 온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버스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내린 뒤 줄지어 관람하고 다시 차에 오른다. 또는 뽀뽀한 관광 일정을 다 마치고 숙박하러 온천 호텔에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한다. 그걸 보며 궁금했다. '저들은 벳푸에 다시 올까?' 하고 말이다. 물론 그런 대중적인 여행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방문에 있어서, 짐작하건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확률은 낮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여행에는 맹점이 있다. 너무 평범해서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간의 볼거리와 숙박시설은 어느 온천지에나 있다. 일반적인 관광객이라면 다음 여행에는 다른 온천지로 떠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특별한 인상조차 없다면 다른 이에게 추천할 확률도 극히 낮아질 것이다.



벳푸 온천 명인 단수별로 제공되는 수건

그렇다면, 언젠가 다시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온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001년, 벳푸시 관광과는 '벳푸팔탕온천도(別府八湯温泉道)' 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내용은 벳푸시 전역의 약 150개 온천 중 각기 다른 온천 88곳에서 입욕하고 도장을 모아오면 소정의 부상과 함께 '온천 명인(温泉名人)' 의 칭호를 수여한다는 것. 일견 엉뚱해 보이지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마케팅이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02년 1월 6일에는 '온천 명인' 등록 인원이 무려 1만 명을 돌파했다. 온천 명인 제도는 온천 마니아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1999년 일본의 전국 온천 동호회가 벳푸에서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앞서 설명한 벳푸팔탕온천도의 시초가 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 소식을 접한 벳푸시 관광과가 이를 다듬어 2001년 공식 행사로 발전시켰다. 핵심에는 벳푸만의 고유한 개성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유행을 읽어낸 데에 있었다. 당시 벳푸시는 쇠락한 온천 도시 이미지가 강했다. 그건 급변한 관광 트렌드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단체 여행이 주를 이뤘다. 각종 모임에서 버스를 빌리고 호텔을 통로 예약하는 온천 여행이 주를 이뤘고, 단체 수요를 소화할 목적으로 대형 온천 호텔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런데 인터넷의 보급과 개인주의 문화로 개별 여행의 시대가 도래했다. 각자의 취향을 충실히 반영한 개인 자유 여행 붐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 때문에 단체 수요로 운영되던 지역의 많은 관광 시설은 위기를 맞았고, 벳푸 역시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했다.



벳푸 온천 명인 스탬프가 날인된 스파포트(온천여권)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매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과녁을 적중시키듯, 핵심 고객을 선정하고 걸맞은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바로 이 단계에서 온천 명인 제도는 수많은 고객 중 '온천 마니아' 를 적중해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도 색다른 온천 경험에 목마른 마니아들은 온천 명인을 목표로 벳푸를 찾기도 찾는다. 88개의 도장을 모으려면 한 번의 여행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88' 이라는 숫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나도 벳푸 온천 명인이다. 2017년 10월 첫 도전을 시작으로 2018년 6월에 88개의 온천 순례를 마치고 제7843대 벳푸 온천 명인이 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엮어 책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다」 도 펴냈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인 내가 벳푸 온천 명인에 도전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재미' 였다. 온천 명인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실은 도장 88개만 모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니, 그 허무맹랑함이 흥미로웠다. 마케팅 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온천의 주요 고객은 전혀 아니었다. 온천을 좋아하긴 했지만 비싼 여관에 갈 정도의 재력은 없는, 두 다리가 튼튼한 20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독특한 이벤트에 흥미를 느끼고 참가할 정도의 마니아적 기질을 갖고 있었다. 즉, 온천 명인 제도는 나와 같은 '잠재적 고객' 을 발굴하는 효과도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온천 명인 연관 모임 중 2030 여성, 엄마와 아기, 어린이처럼 대체로 마니아로 편입되기는 어려운 이들의 온천 모임 사례를 보면, 온천 명인 제도가 문턱을 낮추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벳푸 온천 축제 중 유포카케 마츠리

내가 만난 온천 명인의 대다수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바로, 온천 명인 제도는 '공동온천' 을 순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벳푸의 공동온천은 골목마다 작게 자리한 지역민 중심의 온천이다. 입욕료는 달랑 100엔이지만, 샤워기도 수도도 없이 바가지만 있는 낡은 온천 말이다. 관광객은 좀처럼 갈 일이 없는 공동온천을 메인 순례지로 넣은 데는, 고유한 개성을 몸소 느끼며 도시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온천 순례자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벳푸만의 고유한 입욕 문화 등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벳푸 온천 마니아' 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서 한술 더 떠 '벳푸 온천 전도사' 가 되는 이들도 있다. 벳푸 온천 명인들의 모임인 비영리 민간단체 '벳푸온천명인회' 는 전국에서 온천 명인들을 출신 교장의 '지부장' 으로 임명하고(예를 들면, 나는 '한국 지부장' 에 연구 임명되어있다.) 벳푸 온천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어떤 대가도 없이 시간과 돈을 들여 벳푸 온천을 위한 홍보나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매년 네 번은 꼭 벳푸를 찾겠다는 노리코 씨도, 벳푸 온천에 정이 든 나머지 벳푸에 이주해 온천명인회 부회장에 오른 미치루 씨도, 그 밖의 모두가 점조직처럼 활동하며 애정을 담은 입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그리고 입소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사랑을 이길 것은 없다' 는 것이다.



벚푸 카메가와 지역의 공동온천, 시노유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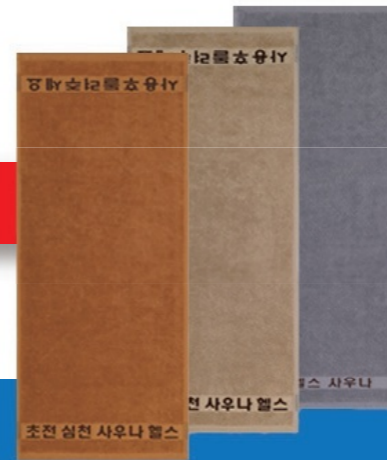
벚푸팔당온천명인회 부회장 야기 미치루

어쩌면 다시 가고 싶은 온천 도시의 비밀은, 내가 사랑하는 이곳의 좋은 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유행은 계속해서 변하고 고객들은 의외로 예리하다.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여행지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진정성 없는 키워드나 광고에서 사람들은 곧바로 포장된 거짓을 읽어낸다. 잠깐의 흥행 대신 롱런을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나다움'을 알아야 한다. 벚푸 온천이 화려한 온천 대신 공동온천을 중심으로 독특한 이벤트를 앞세우고 온천 마니아를 공략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누군가는 낡고 허름하다고 싫어하는 곳을, 누군가는 열광하며 눈을 반짝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만의 특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좋아해 줄 고객층에게 접근해야 한다. 소중한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입 권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 온천만의 개성은 무엇일까. 있다면 어떻게 알릴 것이며, 없다면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를 다시 찾아줄 사람은 누구이며, 아직 오지 않은 손님은 누구일까.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어쩌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 열쇠가 될지 모른다. 부디 우리나라 전역의 온천이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안소정 작가**  
 회원이자 제7834대 벚푸 온천 명인. 주말이면 목욕 가방 들고 떠돌며, 목욕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벚푸 온천 명인에 도전한 여정을 그린 책 <온천 명인이 되었습니까>를 썼습니다. onsenwhal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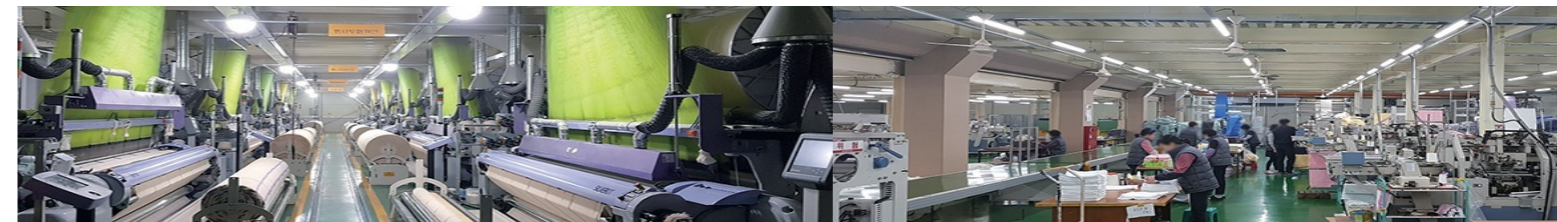
# 50년 전통,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주)



2022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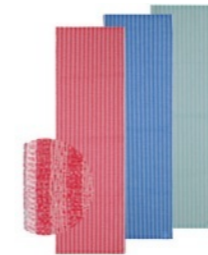


사우나, 온천, 호텔, 모텔, 헬스  
 타올전문 생산업체



고품질, 인기 제품

## 레드캣샤워타올



- 특수한 짜임으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 오랜 사용에도 원형을 유지합니다.
- 세련된 컬러배색으로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오래 사용하셔도 찢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으며, 보풀이 생기지 않습니다.
- 레드캣 샤워타올은 3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53-621-9992 HP: 010-4175-0130

##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1. 작년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를 변경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숙박 및 목욕업에 집중된 온천이용시설을 다양화 (22. 1. 1. 기준, 온천이용시설 579개 중 목욕 및 숙박업이 548개(약95%))
2. 각종 학술대회 및 온천관계자(공무원, 민간 등) 회의를 개최하여 온천산업의 활성화 방안 및 신성장 동력 확보
3. 올해는 10월 중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 예정이며,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온천제품 전시 및 판매, 학술 세미나 등 개최 준비 중

##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

1. 온천도시 최초 지정(8월) 및 지원을 통해 의료관광 등 온천의 다양한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
2. 지역 온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거나, 타 시도와 구분되는 컨셉트를 가진 온천도시를 지정하여 온천도시의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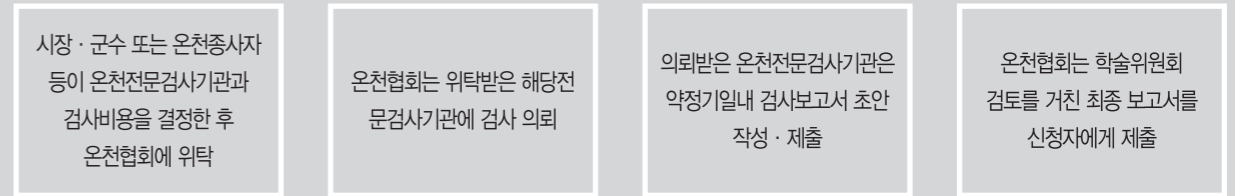
### ■ 온천도시 사업계획(예시)

- (1) 사업내용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체험을 위한 전용 시설 건립  
- 온천 치유의 장·단지 및 부위별 효과 검증 및 DB 구축, 치유체험 프로그램 제공, 온천치유 인증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2) 기대효과  
온천 치유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간 건강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1. 온천 수위 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천지구·구역별로 1개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필요  
(온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현재까지 총 36개소('20년 15개소, '21년 12개소, '22년 9개소) 설치·운영 (약 370개 온천지구·구역 존재)
2. 매년 10개 이상의 신규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온천자원관측 정보시스템의 꾸준한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온천자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3. 온천자원 관측장비 설치에 온천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법정 사무로 온천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신뢰도 확보 등이 목표이므로 해당 업무 및 업무 수행자(협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온천전문검사 절차 안내



※ 최종 검사보고서 제출문에는 전문검사기관과 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주)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가산동)우림라이온스 2차 303호	02)2027-3470
(주)하나 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성지스타워드 803호	031)345-0507
(주)한국건업 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9 (하안동) 삼호빌딩 7층	02)894-2472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712호(보람동,스마트허브1)	044)863-1025
중앙컨설턴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8길 42, 다명빌딩 4층	02)2156-6031
(주)옥수개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8길 28-1, 수성빌딩 4층	02)412-8944
(주)진산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84(화북2동 4955-4) 대해주상복합 2층	064)756-8868
(주)지오엠	경남 김해시 내덕로86번길 18-11	055)327-2709

## 주요실적

### 1. 온천종사자교육

- 교육 시간 / 방법 : 4시간(연1회)
- 온천법(행안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 및 집합교육
- 온천종사자교육 수료현황

년도	대상	수료	미수료	수료율(%)
2020년	534	522	12	98
2021년	524	516	8	98.5
2022년	514	506	8	98.4

- 온천법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온천자원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 사업목적  
국가자원인 온천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인력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관측장비에 의한 실시간 확인 후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 실적 : 총 36개소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수량	15	12	9	36

- 설치 : 금년도 10개 설치 등 대상지 선정 후 계속 설치 예정
- 유지관리 : 총 36개소 설치 장비에 대한 운영 관리
- 관측데이터 해석 : 온천이용과 수위관계 해석으로 온천자원 현황 분석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관측시스템 장비 관리/유지보수 전국 36개소 순회

### 3.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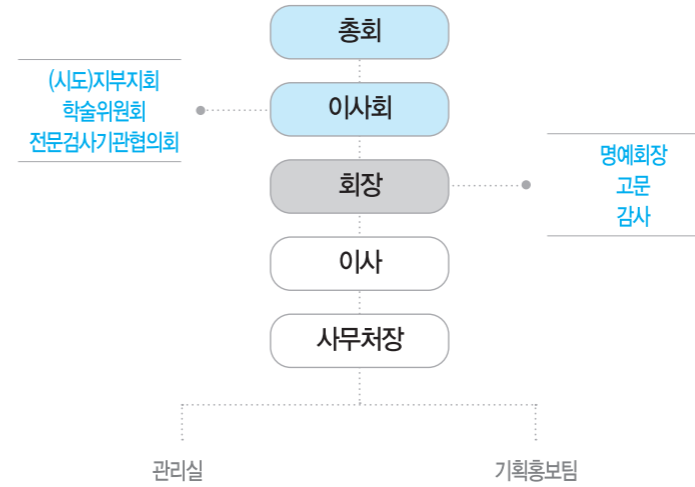
- 시행 : 2011. 3. 25 이후 계속 (12년차)
- 위탁운영 성과  
①심심(검토)강화로 온천전문검사의 적합성, 표준화 달성 ②신규온천공의 현장입회 확행으로 온천전문검사에 대한 신뢰 증진 ③위탁계약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계약건수

종별 \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98	90	64	341
온천공검사, 기타	25	22	30	118
정기온천자원조사	73	68	34	223

### 4. 국제행사 참가

- 일본온천협회 등 방문  
- 기간/인원/장소 : 2023. 6. 26. ~ 30. / 4명 / 일본온천협회, 온천기후물리의학회, 온천의과학연구소, 온천병원, 온천시설 등

## 협회 조직



## 지회 · 지부 및 회원사

**555개 회원사**  
정회원 153사, 일반회원 402사

**지부 1곳**  
경북지부

**지회 2곳**  
부곡지회, 동래지회

▪ 2023년 8월 1일 기준

## 협회 주요업무

- 1 한국온천협회로 온천관리 법적기능 위임(온천법 제27조의2) 시설지도감독, 수질 및 성분 검사, 종사자 교육, 관측시스템 설치 등
- 2 온천이용업소 대표자 역할 및 권한 강화  
온천이용업계의 애로사항 정부 전달 및 제도개선 등 건의
- 3 협회가입 온천이용업소에 대한 홍보 전담 및 운영  
홈페이지 운영, 온천책자 발간 등 전국온천이용시설 정보 제공
- 4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권리보장 적극 지원  
온천운영상 직면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회원사 입장에서 해결·처리
- 5 온천관련 세미나, 워크숍, 국제교류, 해외연수 등 주관
- 6 온천 대축제, 관광상품개발 등 지원

### ※ 홍보물 발간 · 보급

- 소식지 : "온천과 사람" 창간호(2015년도) 및 2019년 겨울호, 2023년 여름호
- 홍보책자 : "아름다운 우리온천"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달력 : 탁상형(2019년), 벽걸이용(2020년)
- 회원사의 활동과 온천현황 등 일반적이면서 전문적이고 가치있는 홍보물 발간 · 보급



## 회원사 탐방 & 광고 안내

한국온천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온천과사람" 에 게재될 회원사 탐방 및 광고 관련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 및 광고에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온천과사람" 은 정기적으로 제작되어 회원사에 배포되며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www.hot.spring.or.kr)를 통하여 온라인에 배포됩니다.

접수 기간 : 수시  
접수 방법 : 협회 이메일 접수 hot\_spring@naver.com

### 온천Tip

검증받은 진짜 온천을 찾으려면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전국온천에 정확한 정보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각 종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spring.or.kr](http://hot.spring.or.kr)

### 연락처 및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507호(광화문오피시아빌딩)
- 연락처 : TEL 02-720-5004 / FAX 02-723-5003
- 찾아오시는길 - 버스 세종문화회관 정류장, 광화문 정류장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 6번출구

2022/23  
지역온천축제  
소식

01

2022년 10월 14일 ~ 16일  
2022 동래온천페스타

(사진제공:동래구청)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동래읍성 역사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천장 일원에서 동래온천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천장 일원에서 추진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코로나 인해 침체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개막식은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농심호텔 야외주차장에서 지역의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진성, 김용임 등 유명 가수들이 초청되어 분위기를 더욱 돋을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허심청 야외주차장에 설치되는 주 무대에서 개막공연과 부대공연이 열리고 인근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설무대를 설치해 매일 한차례 씩 흥겨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참여 시민들은 허심청 앞과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플라마켓에서 지역 특색 관광상품과 페브릭, 공예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사해소금 입욕제,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의상을 입고 개화기 모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옛 시절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전자 앞 인력거와 보름달 조명 등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색소폰 연주와 통기타 밴드 버스킹 등 공연이 마련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공연, 버스킹, 플라마켓, 무료 체험, 빛의 거리 조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장 곳곳에 마련했다"라며 "특히 최근에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플로깅 이벤트를 통해 행사 후 주변 쓰레기 줍기 행사도 개최되니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2

2023년 3월 31일 ~ 4월 2일  
제28회 부곡온천축제

(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군이 주최하고 (사)부곡온천관광협회가 주관한 제28회 부곡온천축제가 지난 3월 3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분홍빛 벚꽃이 만개한 부곡온천 관광특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40여 개의 다양한 축제프로그램과 78℃ 부곡온천수로 삶은 계란 먹기 대회, 온천수 식히기 등 전국 400여 개의 온천단지 중 오로지 부곡온천수로만 가능한 특색있는 체험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즐기GO! 먹GO! 보GO! 78℃로 지지GO! 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제28회 부곡온천축제는 부곡온천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온정제 등 전통 행사와 축제 기간 화려한 출연진 속에 공연행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존 운영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볼거리를 알차고 풍부하게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제28회 부곡온천축제를 통해 부곡온천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국 온천관광지의 선두주자로서 내년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022/23  
지역온천축제  
소식

03

2023년 2월 5일  
제38회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사진제공:해운대구청)



"등근 달에 새해 소망 빌어 보세요"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38회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가 열린다. (사)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후원하며 수만 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는 전국 대표 정월대보름 민속문화관광축제다. 축제 이틀 전인 3일부터 백사장에 '새해 소망 쓰기' 부스가 마련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5일 정월대보름날에는 월령가원제,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3시 20분 온천비가 있는 해운대구청 앞 열린정원에서 '온천선설 무용극'이 펼쳐지고, 구청 앞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가 축제의 흥을 돋운다. 주 행사장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오후 4시 10분 해운대아리랑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작가가 큰 붓으로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휘호(붓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달집에 불을 지피기 전, 달집 앞에 제례상을 차려놓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월령가원제를 지내고 달이 뜨는 시각인 오후 5시 20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 태우기가 진행된다. 이어서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배경으로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펼치는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진다. 영남지역의 유일한 강강술래단인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이 펼치는 강강술래 공연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이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유산이다. 휘영청 밝은 정월대보름달 아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동놀이의 흥겨운 풍물패 장단에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행사는 막을 내린다.

04

2023년 5월 12일 ~ 14일  
제28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사진제공:유성구청)



2023 유성온천문화축제 성료! 명성 당당히 입증... 4년 만에 대규모 축제 갈증 해소. 역대 최대 관람객 물렸지만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온천로 일원에서 개최한 '2023 유성온천문화축제'가 그 화려한 명성을 입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2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축소·폐지되었던 대규모 체험프로그램들이 부활하는 등 8개 분야 100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개막일인 12일 유성축출과 온천수신제, 온천수차정놀이로 시작으로, 전통과 온천, 과학, 국방, 젊음을 테마로 민·관·군·학이 함께하는 대규모 거리퍼레이드가 온천로 일원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특히, 개막식 축하공연 후 갑천변 상공에서 펼쳐진 300대의 드론라이트쇼와 불꽃쇼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 이튿날인 13일과 14일 오후에는 대형 워터게이트에서 온천수를 활용한 물총스플래시가 펼쳐졌고, 13일 저녁에는 온천수DJ파티와 래퍼 비와이의 합창공연이 펼쳐져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오랜만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축제이니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 "유성구의 사계절 축제는 오는 8월 유성재즈&맥주페스타로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23  
지역온천축제  
소식



2022년 10월 22일 ~ 23일  
마금산 온천축제

(사진제공:창원시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2 마금산온천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열린 마금산온천축제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마금산온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고창도) 주최로 다시 열린다.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온천수신제를 시작으로 시민이 참가하는 온천가요제 예선을 비롯해 난타, 댄스, 아랑고고장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는 불꽃놀이와 경품 추첨, 초대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23일에는 온천가요제 결선과 시상식이 있다. 관광단지 내 족욕장에서 마금산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다. 북면 단감, 막걸리, 손두부 등 특산물 시식 행사와 농산물 직판장도 열린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으로 3년 만에 축제를 재개하는 가운데 온천관광의 명맥을 이어가는 마금산온천관광단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마금산온천축제가 온천관광 맛보기 축제이자 치유의 장소로서 창원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금산온천은 섭씨 57도 이상의 약알칼리성 식염천이다. 나트륨과 철, 칼슘, 망간 등 20여 가지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신경통, 근육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2023년 4월 14일 ~ 16일  
제39회 수안보 온천제

(사진제공:충주시청)



충주시는 온천지역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는 '제39회 수안보 온천제'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충주시 수안보 물탕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천제 첫날인 14일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관람객 대상 OX퀴즈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후 7시부터는 물탕공원 메인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분위기를 돋운다. 15일에는 온천사랑 사생대회, 풍선아트 공연 등 어린이 행사와 수안보 명물인 평산채비빔밥 700인분 나눔 행사, 개그맨과 관람객이 소통하는 개그콘서트가 이어지고, 제2회 온천가요제 본선이 오후 7시부터 시작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휴 탐방로 걷기 행사, 관람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화합 한마당 잔치가 진행되며 온천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부대행사로는 족욕길을 따라 온천수를 직접 체험하는 족욕장이 운영되고, 민화, 우드버닝, 캘리그래피와 같은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이 참여한 소소한 시장 플라마켓이 펼쳐져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우상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장은 "수안보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수안보온천제를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수안보를 방문하시어 힐링 온천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23  
지역온천축제  
소식



2022년 10월 21일 ~ 23일  
충주양성탄산온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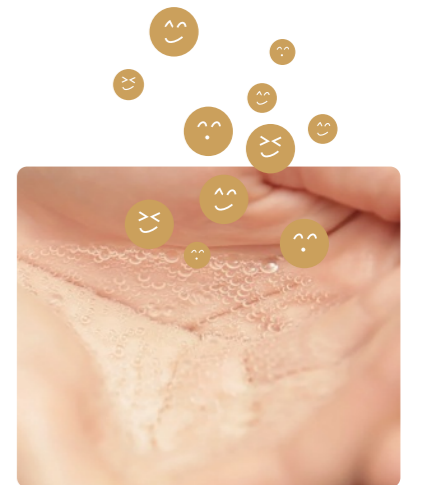
(사진제공:충주시청)



충주시는 '비내섬과 함께하는 양성탄산온천축제'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주시 양성면 양성온천관광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온천관광협의회(회장 박진용) 주관으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21일 저녁 유튜버 김희진tv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22일에는 가을의 느낌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제16회 양성 비내섬 마라톤대회 가 비내섬에서 진행되며, 저녁에는 온천광장 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박주희, 이치현과 벗님들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온천광장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비내섬을 걸어보는 명품 비내섬 걷기 행사 및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치유 한마당 및 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축제가 막을 내린다. 시는 부대행사로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는 족욕 체험, 민속놀이 체험, 게릴라 이벤트, 할로윈 컨셉으로 꾸며지는 캠핑 페스티벌 등도 진행해 캠핑객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용 회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양성을 방문해 축제와 탄산온천도 즐기시고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이어지는 비내섬, 비내길도 걸어보시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내섬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생태계의 보고로서 '사랑의 불시착'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장소이다. 특히, 남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비내길은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한 아름다운 길로 트레킹, 걷기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능암온천랜드 천연탄산온천

능암온천랜드는 지하 703m에서 힘차게 솟아오른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 탄산온천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출된 탄산온천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다량의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능암 온천에 포함된 다량의 탄산가스는 피부 속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심장천'이라고 불리웁니다.또한 확장된 모세혈관을 통해, 몸에 축적된 노폐물들을 배출함과 동시에 온천수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 미네랄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여, 피부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들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주)능암 | 충북 충주시 양성면 새바지길37 능암온천랜드(능암리 산14) | 예약/문의 043-855-8877  
www.NEUNGAM.com